국립전주박물관, 올해도 전시 '풍성'

한반도 남부 최초 철기 문화가 꽃핀 전북 지역 '만경강' · 하반기 순회전 '대한국인 안중근 쓰다' 개최

국립전주박물관(관장 박경도)이 2025년도 주요 전시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는 지역문화 전시를 확대하고, 서예문화 브랜드 강화에 중점을 두고 한반도 남부 최초의 철기 문화가 꽃핀 전북 지역의 '만경강'부터 안중근 의사의 생애와 글씨까지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는 전시를 선보일 예정이다.

먼저, 새해 첫 특별전으로는 '나고 드는 땅, 만경과 동진'을 개최한다. 전시는 기술적 선진지이자 교통로였던 만경강·동진강 유역의 역사와 문화를 집중 조명한다. 만경강 유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청동 잔무늬거울이 출토되고, 최초의 청동기 거푸집과 송풍관이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곳인 동시에 한반도 남부 최초의 철기가 유입된 지역이다.

오랜 시간 전북 지역 내륙 교통의 중심이자 내재적인 기술의 발전을 이뤄낸 기술적·문화적 선진지였던 만경강의 생명력은 삼국시대에도 이어져 전북 지역은 백제, 마한, 가야 등 다양한 문화가 유입·확산되는 문화적 교차점이 됐다. 이번 전시는 문물 교류를 중심으로 전북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함으로써 지역 문화의 역동성과 저력을 널리 알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 서예문화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해 안중근의사숭모회·안중근의사기념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함께 하반기 순회전 '대한국인 안중근 쓰다'를 개최한다. 전시에서는 안중근 의사의 서예 작품을 통해 생애와 활동, 사상을 되돌아보고 전주와 전북의 천주교 역사를 함께 소개한다.

특별전뿐만 아니라 4월에는 우리나라의 타양한 전통 서예작품을 연중 관람할 수 있는 상설전시 '서예문화실'을 선보인다. 전시에서는 우리나라 전통 서예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역사·문화적 맥락과 미적 가치를 함께 전달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또한 서예문화실 재개관과 함께 그동안의 박물관 특성화 사업의 결과를 지역 주민들께 널리 알리는 브랜드 선포식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전주박물관 관계자는 "2025년 특별전과 순회전시로 많은 관람객들이 지역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다채롭고 유익한 볼거리를 준비해 많은 분들이 박물관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최북미술관 다양한 작품 만난다

2월 23일까지 한국화 · 서양화 · 조각 · 공예 등 전시 '소장품 展' 개최

무주군이 새해를 맞아 최북미술관의 첫 번째 기획전시회를 연다고 밝혔다. 오는 2월 23일까지 개최될 '2025. 최북미술관 소장품 展'은 그동안 미술관에서 기증과 관리전환을 통해 수집한 작품을 전시하는 것으로, 한국화와 서양화, 조각, 공예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과 만날 수 있다.

이일순, 이봉금 작가가 각각 다른 재료와 표현으로 완성한 수묵화와 유화 작품을 통해 '뱀'의 상징성과 의미를 감상해 볼 수 있으며 무주의 자연을 유화로 옮긴 박천복 작가의 '고향 설경'과 이부안 작가의 '무주의 바다'에서는 평온하고 아름다운 풍경이 기다리고 있다.

장영애 작가는 푸른 장미꽃을 통해 활짝 피어나는 꽃의 운이 무주에 지속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으며 이 밖에도 유대수, 표인부, 박숙경, 김영민, 김기철, 김승호, 김시오, 홍성훈, 나운채, 박찬용 작가의 작품들도 관람할 수 있다.

무주최북미술관 양정은 학예사는 "소장품 수집은 미술관의 역할 중 하나로 미술품의 보존과 전시를 통해 미래 가치가 될 작품들을 재발견하고 있다"라며 "무주최북미술관이 발견한 보석같은 작품들을 함께 보시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무주읍에 위치한 최북미술관(무주읍 최북로 15 / 09:00~18:00 월요일 휴관 / 063-320-5636)은 조선 후기 산수화의 대가 최북의 그림 세계를 조망할 목적으로 건립된 공립미술관으로 2012년 6월 8일 개관했다.

무주최북미술관에서는 괴석도와 산수도 등 최북의 진품 4점을 비롯해 110점의 작품을 보유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국제영화제, 국회문화극장 프로그램 이어간다

지난해 이어 문화 소통의 장 마련… 1월 '룸 쉐어링' 시작으로 2회 추가 진행 예정

전주국제영화제(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가 올해도 국회문화극장 프로그램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전주국제영화제와 국회사무처는 국회문화극장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3년 12월 2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문화콘텐츠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국회사무처가 주최하는 국회문화극장은 국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해 매월 셋째 주 목요일마다 영화와 공연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무료로 선보인다.

2024년 2월 '비밀의 언덕'부터 올해 1월 9일 '룸 쉐어링' 상영에 이르기까지 총 6회의 상영회가 열렸다. 상영회마다 영화 상영 전 감독과 배우들이 참여하는 무비토크를 통해 작품의 제작 비하인드와 영화적 의미를 관객들과 나누며 특별한 영화 감상 경험을 제공했다.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2025년에도 계속된다. 1월 '룸 쉐어링' 상영을 시작으로 2회 추가 상영이 예정돼 있다.

전주국제영화제 관계자는 "엄선된 작품들과 함께하는 무료 문화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 설 맞이 평양통일떡국 나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16일 전당 조리체험실에서 설 맞이 평양통일떡국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전주시 보훈단체협의회, 북한이탈주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주시협의회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의 설 대표음식인 떡만둣국을 만들어 맛보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보훈가족 등 지역사회 이웃들과 함께 정을 나누고, 잊혀가는 우리 고유의 명절 문화를 되새겼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김도영 원장은 "지역민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서로의 안녕을 기원하는 자리를 갖게 돼 뜻깊다"며 "올 한 해도 전통문화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태권도원 상설공연 '태권도! 영원한 유산' 18일 개막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헌)은 오는 18일, 2025년 태권도원 상설공연 '태권도! 영원한 유산' 첫 공연을 갖는다.

2025년을 맞아 새롭게 선보이는 태권도원 상설공연 '태권도! 영원한 유산'은 태권도 격파와 품새, 호신술 등으로 구성되어 무예로서의 정신과 태권도가 지닌 가치가 세대를 넘어 하나의 문화로서 이어지는 것을 표현한 공연으로 18일 11시에 최초로 공개된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오는 18일, 2025년 태권도원 상설공연 '태권도! 영원한 유산' 첫 공연을 갖는다.

공연은 크게 2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1막에서는 태권도가 가지는 정신적 요소들이 위력 격파, 감각 격파 등 다양한 형태의 격파로 표현되고, 2막에서는 세계인을 매료시킨 K-pop과 함께 한류의 원조인 태권도가 어우러진 모습을 선보이며 즐거운 문화로 태권도를 소개한다.

올해 태권도원 상설공연은 '1월부터 2월, 11월부터 12월'은 주말과 공휴일 위주로 '11시와 14시' 2회 운영하고, '3월부터 10월'까지는 태권도원 휴원일을 제외한 매일 '11시와 14시'에 공연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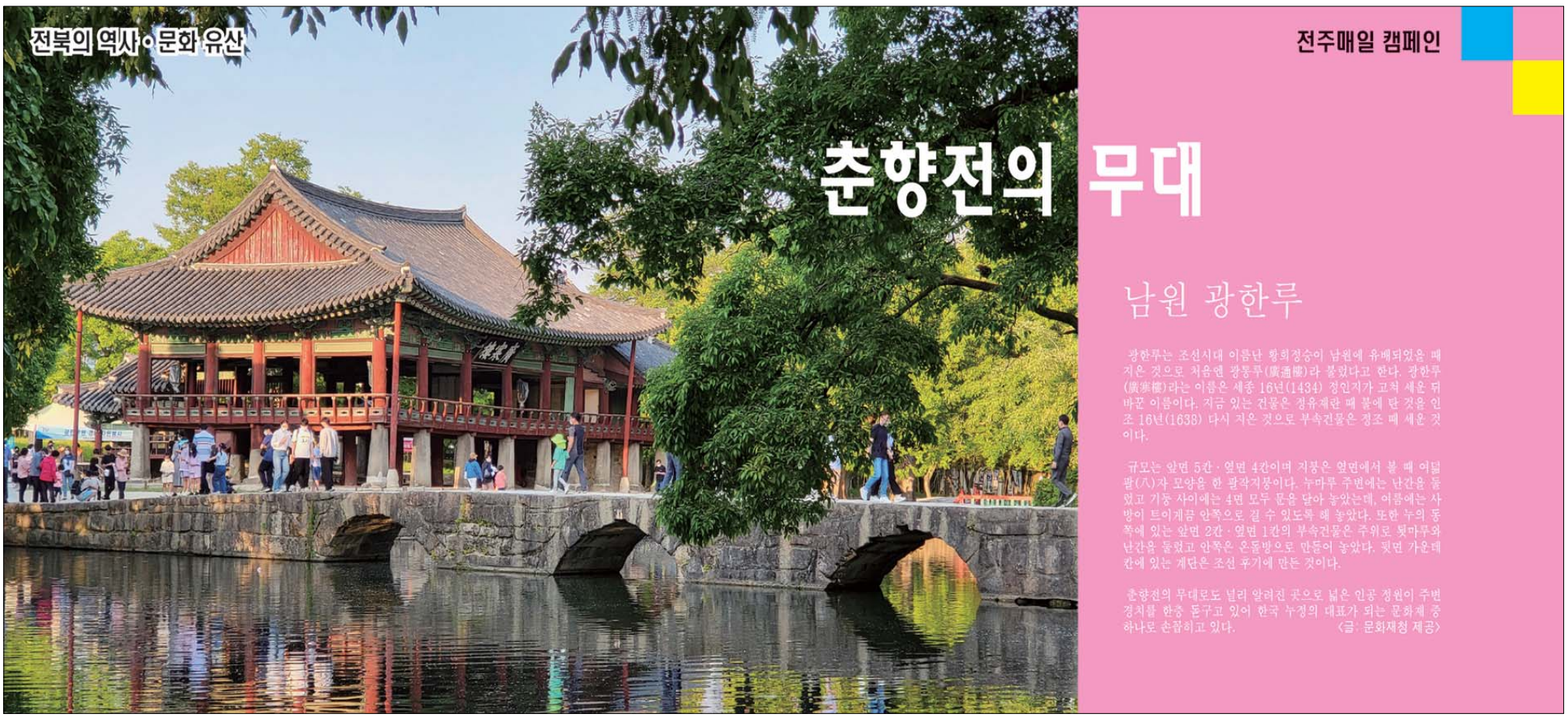
김중헌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은 "태권도원은 태권도를 주제로 보고 즐겁게 체험하는 등 다양한 태권도 콘텐츠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태권도가 우리의 문화유산이자, 대표 관광 콘텐츠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태권도진흥재단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신년 · 설 기획공연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오는 29일 오후 3시, 예원당에서 신년·설 기획공연 '판소리 춘향가 눈대목 오라토리오 시즌 I'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전통 판소리와 오라토리오의 조화를 통해 따뜻한 울림을 전하며, 신년과 설 명절을 맞아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기획되었으며, 확장된 LED 무대와 섬세하게 연출된 영상미는 관객들에게 시각적 몰입을 선사하며, 국립민속국악원 국악연주단과 남원시립합창단의 완벽한 호흡은 오라토리오 형식으로 구성한 판소리를 더욱 빛나게 한다.

이번 무대에서는 남원경치, 사랑가, 이별가, 기생점고, 십장가, 쑥대머리, 박석티, 농부가, 암행어사 출두 등 춘향가의 주요 장면들이 오라토리오 형식으로 새롭게 구성된다.

공연 제작은 연출 송혁규, 지휘 이태영, 작곡 유민희, 대본·구성 문숙현, 합창지도 김혜영이 참여하였으며, 국립민속국악원 예술감독 유수정 명창과 김혜정, 김효신 악장, 안명주 안무가 등이 전통의 깊이를 바탕으로 국악연주단의 새로운 공연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고 있다.

공연은 8세 이상 관람이 가능하며, 관람료는 무료로, 사전 예약은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namwon.gugak.go.kr)과 전화(063-620-2329)로 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